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Vol. 20 / 2020. Winter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바이러스가 바뀌놓은 그리고 바뀌게 될 세상.
세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언택트(Untact)는 일상이 되었고, K자, V자, U자, W자, S자 등
경제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단절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존 전략을 내세운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연결은 필요하다는 것.
비대면의 일상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인간은 고립될 테니까.
변화 속도에 맞는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언택트를 넘어 세상과 다시 연결해야 할 때다.
On+tact!

WORDS. 박영화

발행일

2020년 12월 5일

Publish

IBK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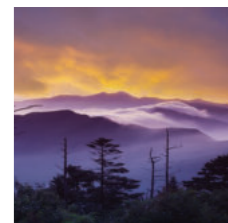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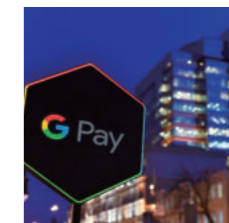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Contents

2020 — WINTER
Vol. 20

04	SPECIAL COLUMN	그린스완 시대 ESG 투자의 길
08	GLOBAL REPORT	빅테크 기업의 도전과 금융산업의 미래
12	ISSUE & FOCUS 1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절세법
16	ISSUE & FOCUS 2	삼성가(家)의 상속세 이슈로 살펴본 우리나라 상속세
20	ISSUE & FOCUS 3	개인투자용 국제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24	RICH KNOWHOW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26	INVESTMENT	2021년 1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0	CULTURE SPACE	산린이들이여 민족의 영산으로 떠나자
34	LIKING TRAVEL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알프스를 잇는 몽블랑 트레킹
40	CONSOLATION OF BOOK	유령과 천문학자의 우연한 만남 새내기 유령
42	IBK FUND	IBK 추천 펀드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
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
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
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
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
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
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린스완 시대 ESG 투자의 길

2020년, 코로나19가 온 지구를 마비시켰고 2분기 세계 경제는 최악의 성장률과 주식시장을 경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20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WEF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감염병(Infectious diseases)'의 위험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WEF는 감염병 위험을 '발생 시 충격'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리스크 중 열 번째 위험한 항목으로 평가한 것이다.

WORDS. 김대호 한국그린파이낸스연구소 대표



그린스완(Green Swan) : 기후위기가 인류에게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 '불확실한 거대 위험'을 뜻하는 '블랙 스완'에서 파생된 용어

ESG 투자전략	ESG 투자의 구체적 내용
네거티브/투자배제 스크리닝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펀드나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섹터, 기업, 활동을 배제
포지티브/베스트인클래스 스크리닝 (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업종 평균에 비해 양호한 ESG 성과를 내는 섹터,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규준 스크리닝 (Norms-based Screening)	OECD, ILO, UN, UNICEF 등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투자인지 판단하여 투자
ESG 통합 (ESG Integration)	ESG 정보를 전통적 재무분석에 더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배제에 체계적으로 활용
지속가능테마투자 (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클린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지속가능농업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테마주나 자산에 투자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Impact/Community Investing)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전통적 방식으로는 투자가 되지 않는 분야나 특정 사회·환경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에 투자
경영관여 및 주주행동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경영진·이사회에 대한 직접적 경영관여, 주주 제안권 행사, ESG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투자 방식

표 : GSIA의 ESG 투자 7개 전략형태 분류

그린스완 시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

WEF가 꼽은 2020 글로벌 리스크 중 발생 시 충격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처럼 기후변화 위기가 가져올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와 위협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고 이름 붙였다. BIS에 따르면 우선 그린스완은 전형적 '펫테일' 분포를 가진 블랙스완의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블랙스완과 다른 점은 그린스완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 그린스완은 블랙스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복잡한 연쇄작용과 캐스케이드(폭포수) 효과를 일으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지정학적·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행동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의 기반이 되어 온 에너지와 인프라 체계를 상당 부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 이전부터 지속가능금융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평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후와 경제발전을 공존시켜야 하는 '신기후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는 절박함이 커졌기 때문이다.

ESG 투자란 무엇인가?

ESG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선별과 운용에 있어 수익성·성장성 등 전통적 기준 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을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ESG 투자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책임투자가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ESG 투자는 선관주의 의무에 기반한 최적의 투자성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ESG 투자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2000년 중반부터인데, 유엔 산하 UNEP FI가 2006년 '책임투자원칙(PRI)'을 수립하고 자산보유기관, 자산운용기관들에게 ESG 투자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과 같은 선도적인 연기금, 국부펀드, 자산운용사가 ES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는 ESG 투자를 7개의 전략형태로 분류한다.(표 참고) 30.7조 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ESG 투자를 투자전략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네거티브/투자배제 스크리닝 전략'이 19.8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SG 통합 전략'이 17.5조 달러, '경영관여 및 주주행동 전략'이 9.8조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 정규분포상 특이 현상은 꼬리가 얇고 발생가능성이 낮는데 비해, 특이 현상임에도 꼬리가 두껍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가리킴.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표현할 때도 사용됨



글로벌 시장의 경우 팬데믹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금이 ESG 펀드로
유입되었다. 미국만
하더라도 2019년 이후
ESG를 제외한 펀드는
자금 유출이 지속된 반면
ESG 펀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ESG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선별과 운용에 있어
수익성·성장성 등
전통적 기준 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을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글로벌 ESG 투자 현황

7조 달러(약 8,400조 원)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2020년 투자자 연례 서한에서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25% 이상인 기업들은 2020년 중반까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대신 ESG 추종 ETF²⁾를 지금의 두 배인 15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20년 중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120억 달러로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투자 상한액을 14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ESG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세계 운용자산은 2018년 말 기준 30.7조 달러로 2016년에 비해 34%가 커졌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 정도로 확대되었다.

국내 ESG 투자 시장 현황과 투자 전략

글로벌 시장과 달리 조용했던 국내 ESG 투자 시장이 최근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팬데믹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금이 ESG 펀드로 유입되었다. 미국만 하더라도 2019년 이후 ESG를 제외한 펀드는 자금 유출이 지속된 반면 ESG 펀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이제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현재 국내 ESG 펀드는 총 41개로 순자산규모는 4,618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ESG 펀드와 유사한 개념인 SRI 펀드의 순자산규모는 1조 1,190억

2) Exchange Traded Fund의 약어로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



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 들어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각 증권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서치센터의 ESG 조사 기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체적인 ESG 스코어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ESG 투자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먼저 국내도 ESG 평가기관들이 존재하지만 평가 방법론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늬만 ESG인 소위 ‘ESG 워싱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ESG 펀드에 편입된 포트폴리오가 정말 ESG를 잘하는 기업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ESG 펀드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ESG 수준은 일반 주식형 펀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³⁾ 이는 아직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고, 환경 측면에서도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ESG 성과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는 필요하고 미래도 밝다. 많은 기존 펀드가 장기적으로 BM⁴⁾을 언더퍼폼⁵⁾하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ESG 지수는 아웃퍼폼⁶⁾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왔다. 더군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정학적, 생태학적 그리고 환경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개선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아웃퍼폼의 필수적 요소다. 양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뉴노멀 시대는 단기간 성장성보다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이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ESG 투자는 더욱 주목 받을 것이다. 바이든은 당선 일정으로 파리협정 복구를 천명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시기 추진되지 못한 환경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ESG 투자도 환경 관련 투자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ESG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전반적 ESG 성과보다 환경 부문 성과를 중심으로 한 투자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의 관련 펀드나 ETF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그린스완 시대, 슬기로운 ESG 투자의 길이다. WIN CLASS

3) 자본시장연구원. 2020.8. 「국내 ESG 펀드의 ESG 수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0-19호

4) 벤치마크(Bench Mark)의 약자로 펀드를 운용할 때 그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기준

5) 6) 특정 펀드의 일정 기간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를 언더퍼폼이라고 하고 상회하는 경우를 아웃퍼폼이라 함



빅테크 기업의 도전과 금융산업의 미래

과거 금융산업은 금융사들끼리만 경쟁하던 구도였다. 지점 입점 전략, 금융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 증권사가 경쟁하던 산업이었다. 금융사들만이 영위하던 금융산업에 비금융사들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경쟁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과 IT기업이, 혹은 IT기업과 IT기업의 경쟁으로 양상이 바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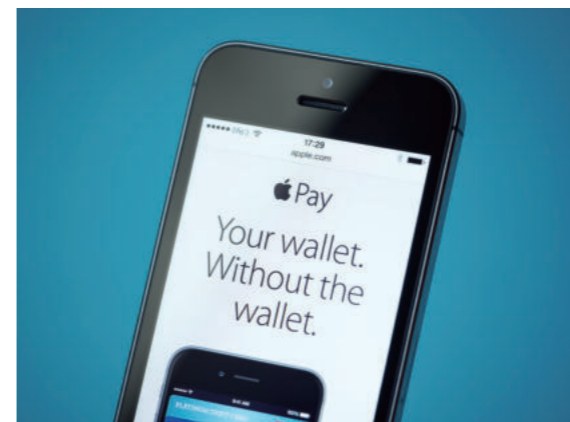
WORDS.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빅테크 기업들의 언번들링

새로운 금융 경쟁 양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가 핀테크(FinTech)와 테크핀(TechFin)이다. 핀테크는 금융사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테크핀은 ICT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서비스에 금융서비스도 포함하는 움직임을 뜻한다. 핀테크와 테크핀의 격돌은 소위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특정 금융서비스들을 기존 금융사들보다 '더 잘'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더 크게 부상했다. 특히,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BAT(Baidu, Alibaba, Tencent)'로 대표되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산업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아마존(Amazon)은 기업들을 선정해 운용자금을 대출해주는 'Amazon Lending'을 출시하고, 대출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까지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Facebook)의 Messenger Pay뿐만 아니라, Google Pay, Baidu Wallet 등과 같은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이 두드러졌고, 알리바바(Alibaba)의 MyBank와 텐센트(Tencent)의 WeBank의 은행서비스 진출은 금융산업의 상당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복선과 같았다. 국내에서도 삼성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펙크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온 국민이 이미 체감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특징들 중 하나는 '언번들링(Unbundling)'이다.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지급결제,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에 이르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전달(Bundling)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해체·분리(Undundling)하여 하나의 서비스만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인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안정성 규제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을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일컫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언번들링하여 수행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통 금융기업들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Unlevel Playing-field)'이라고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과 금융산업의 긴장감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가입자 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점포·비대면 접근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기존 금융사들이 점포를 활용한 대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편리함과 유용성을 인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구축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필자는 <미래 시나리오 2021>을 통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오픈뱅킹이 의무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 11월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이 통과되어 소비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 면허를 소지한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망의 지급결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이 완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이 은행산업을 소유(최대 34%)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2차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해서 안정적 경영이 어려웠으나, 2020년 5월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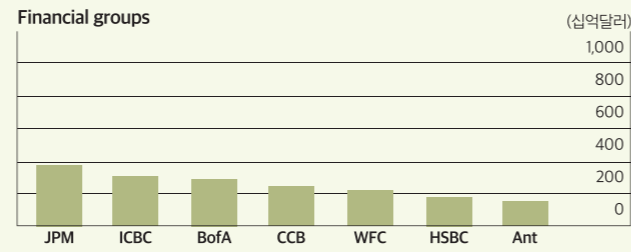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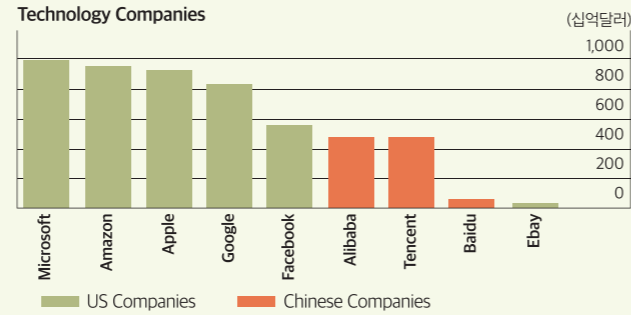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금융사들을 앞도하고 있다.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뿐만 아니라, Alibaba와 Tencent도 세계적인 금융사들을 상회하는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통과되면서, 2021년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P2P 대출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고, 2019년 들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개정하는 법안도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의 표준을 뒤집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금융사들을 앞도하고 있다.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뿐만 아니라, Alibaba와 Tencent도 세계적인 금융사들을 상회하는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은 알리바바가 설립한 금융사로, 이미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부상했다. 금융사들도 디지털 선호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IT인재를 영입하고,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다.

빅테크 기업들, 어디까지 뻗어 나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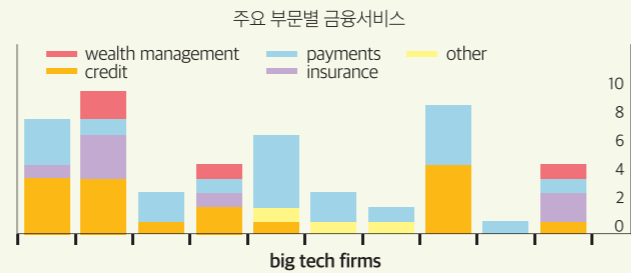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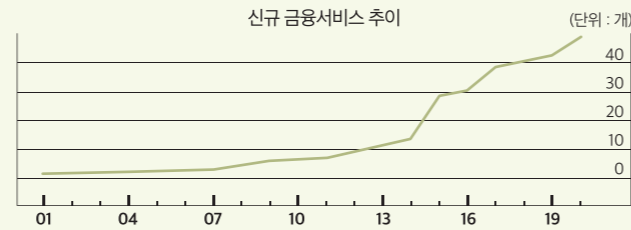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가 보유한 플랫폼의 범용성, 브랜드 인지도, 고객 데이터, ICT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 10대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신규로 론칭하는 금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0~2021년 사이에는 더욱 가파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신용거래(Credit)와 지급결제(Payments)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증가해 왔고, 보험(Insurance)과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통 금융사보다 수익성

빅테크 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의 시가총액 비교



자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2019년 4월 30일 기준 시가 총액
JPM = JPMorgan Chase; ICBC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BofA = Bank of America; CCB = China Construction Bank; WFC = Wells Fargo & Co; HSBC =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Ant = Ant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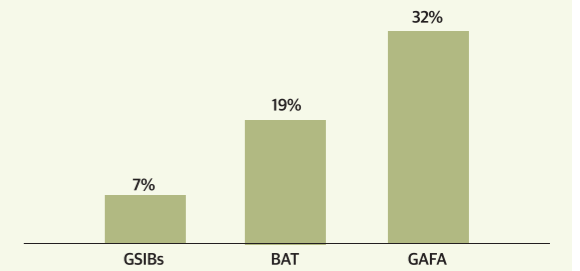
10대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추이



자료 : Banque de France,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을 비교해 보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금융사들도 지점을 축소하는 등 자산을 경량화해 나가고 있지만, 비대면화 서비스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무점포·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들은 위험을 부담해 가며 '서류상의'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상환태도를 평가해 위험을 경감한 채 적정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Tencent)는 각각 중국 결제 서비스 시장의 53.8%와 38.9%를 점유하고 있다(2018년 4분기 기준). 이러한 강세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도 텐센트의 위뱅크(WeBank)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MyBank)가 각각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위뱅크는 주로 SNS상에서 이용자의 행동 패턴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마이뱅크는 중소 상공인들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한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들은 금융기관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사들과 협업이 중요했다. 협업이 중요했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역할을 배제한 직접 금융을 가능케 하려한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빅테크 vs 글로벌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비교



자료 : Bloomberg, Reuters, Gurufocus,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주1 : 'GAFA' =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BAT' = Baidu, Alibaba, Tencent.
주2 : FSB는 매년 전 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은행 3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이를 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라고 하며, JP Morgan Chase, Citigroup, HSBC 등이 해당되며 국내 금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활용해, 송금, 외환, 신용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를 탈중앙화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은 암호자산 리브라(Libra) 발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 계좌 없이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빅테크,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에 진입했다. 강력한 규제들은 국내에서 기업경영을 꺼리게 만들어 오프쇼링(Off Shoring, 해외 생산기지 이동)을 자극하거나, 리쇼어링(Reshoring, 생산기지 본국 회귀)을 어렵게 만든다. 완화된 규제환경의 나라들이 선도적인 기술과 플랫폼을 도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과거에 머물게 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경쟁력 있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이 육성된다면, 기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빅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신용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실이라는 문제에 처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된다. 나아가 빅데이터 관리 부실로 야기될 수 있는 해킹 및 보안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겠다. WIN CLASS



2021년 확 바뀐 부동산 절세법



최근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했다. 그중에서도 보유세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 증가는 물론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증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WORDS.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3대 부동산 세금의 인상

먼저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어떤 세금들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다주택자들에 대해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인상되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1~4%에서 8~12%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5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12%인 6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러한 취득세율 인상은 지출증가로 이어지므로 특히 다주택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경총 뛰게 된다.

둘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2~3배 인상된다. 개인 등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전보다 2~3배 이상 증가하도록 입법이 완료되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데, 이때 1주택자는 0.6~3.0%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또는 전국에서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1.2~6.0%까지 종과세가 적용된다. 그 결과 주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증가와 맞물려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양도소득세 종과세율도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 종과세율이 기본세율에 10~20%p를 더하는 것에서 20~30%p를 더하는 것으로 강화되며, 단기매매에 따른 세율도 40%에서 70%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과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면 보유세가 많아지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도 많아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종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넷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종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때 종과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에서도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데 그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해당한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세제도 대폭 강화된다.

발등에 불 떨어진 보유세

현재 시세의 60~70% 사이에서 고시되고 있는 기준시가가 시세의 90%를 향해 올라가면 보유세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계산방법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 수와 명의 등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기준으로 이를 알아보자.

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와 공동명의로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진다. 이 둘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단독명의로와 공동명의로로 보유한 경우의 세금차이를 알아보자. 단, 기준시가는 14억 원이고 단독명의로 시 세액공제율은 80%를 적용하자. 기타의 내용은 무시하기로 한다.

단독명의로는 9억 원이 공제되고 세액공제율이 80%까지 적용되나, 공동명의로는 공제만 12억 원까지 적용될

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의해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사례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은 단독명의 200만 원, 공동명의 110만 원으로 단독명의가 다소 많이 나오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단독명의는 40만 원, 공동명의는 110만 원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보유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층들은 단독명으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된다. 보유기간과 나이를 가지고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단, 공동명의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짧거나 나이가 젊은 층들은 이러한 세액공제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결국 1주택자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부세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보유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애써가며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만들 필요는 없다. 부동산은 움직이면 돈이 들어간다.

②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실무에서 보면 종부세는 주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층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이들이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명의에 따른 종부세를 알아보자. 단, 기준시가는 각각 7억 원이라고 하자. 이외의 내용들은 무시하기로 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서 한 개인이 2채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6억 원과 종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종부세는 1,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는 어떨까? 이 경우 공제액은 모두 12억 원이 적용되나 세율은 종과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는 230만 원이 나온다. 한편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공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115만 원이 나온다. 결국

종부세만 본다면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하는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양도세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과 재산이 분산되면 이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애써가며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만들 필요는 없다. 부동산은 움직이면 돈이 들어간다.

맞춤별 주택 보유 및 처분전략

현재의 부동산 세금은 2020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그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변화된 세제를 따라잡지 못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개정세법을 모두 종합해 자신에 맞는 보유 및 처분전략을 찾아보자.

① 1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1~3%로 취득세를 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면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주의해야 한다. 2021년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 2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따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과세되는 2주택 모두를 2020년 11월 중에 매도했다면 2020년 11월부터 2년 후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들은 거주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해야 한다.

②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8%를 피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1년 내에 처분 및 전입의무를 지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에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의 처분 및 전입의무 기간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입을 제때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입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유의해야 할 법 적용요건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한편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3주택 상황)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때 상속주택 등은 없는 것으로 봐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일반주택이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때 종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③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등록을 할 수 없고, 기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정도만 10년 장기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등록하도록 한다. 한편 기존 등록자들은 임대무기기간이 경과하면 4년임대는 무조건, 8년 임대는 아파트에 한해 자동으로 등록말소된다. 이렇게 등록이 말소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을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년 내에 이를 양도해야 한다. 한편 말소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종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자진말소에 한해 말소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④ 법인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 종합부동산세가 기준시가의 3~6%, 법인세가 10~25% 외에 추가로 20%가 더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보유세 먼저 따져보고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법인세도 줄이고 보유세도 줄이고 싶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세만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2021년 6월 1일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WIN CLASS

<표1> 일시적 2주택자가 유의해야 할 법 적용요건

구분		종전주택 처분기한	새주택으로의 전입의무	위반 시 불이익
취득세 일반과세 (1~3%)	규제지역→규제지역	1년	없음	취득세 종과세
	규제→비규제	없음	없음	일반과세
	비규제→규제지역	3년	없음	취득세 종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제지역→규제지역	1년	1년(최대 2년)	비과세 적용배제
	규제→비규제	3년	없음	
	비규제→비규제	3년	없음	



삼성가(家)의 상속세 이슈로 살펴본 우리나라 상속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한 달간 삼성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이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무려 1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는 상속세를 걷는 것보다 상속세가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상속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WORDS.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상속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시작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에 대한 여러 논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논점은 상속세액이 너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삼성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려서 자칫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속세 인하나 폐지는 오히려 부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유지 또는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상속세는 청년층의 사회 출발점의 평등을 지향한다

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좋은 세제는 무엇인가?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세피난처가 있지만 대부분 섬이나 육지의 고립된 지역에 존재할 따름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1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을 낮출 수는 없다.

공평을 추구하기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가 작동한다. 소득세는 세금을 내고 난 뒤 월급이 그 전보다는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상속세는 청년들의 사회 ‘출발점의 평등’을 지향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00미터 달리기 경주에서 누구는 출발선에서 있고 누구는 90미터 지점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말하는 ‘공평’의 관점과는 한참 먼 이야기가 된다.



상속세 과세유형은 나라마다 다르다

세법과 회계의 눈으로 보면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무상으로 받은 소득의 일종이다. 이를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로 부과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상속세’로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에 상속세 제도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상속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상속세 관련 통계를 재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나 비율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 것은 단견일 뿐이다.

어쨌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고, 프랑스(45%), 미국(40%)과 영국(40%) 보다 높다. 그러나 이는 단순비교할 사항이 아니다. 상속세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상속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세가 많고 적음의 시비는 조세부담률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부담율은 국내총생산액(GDP) 중에서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결국 상속세가 많고
적음의 시비는
조세부담률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부담율은
국내총산액(GDP)
중에서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분할해서 납부(연부연납기간) 할 수 있고 현행 세법에서는 최장 20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상속세법 제71조), 상속세 금액에 따라 이를 좀 더 늘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해당법인의 출자총액 5% 이내라면 (법령이 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 이내) 이 때는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가 없게 된다(상속세법 제16조). 즉, 피상속인 보유한 삼성계열사 지분 5%를 공익법인에 출연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WIN CLASS

**OECD 국가
최고 상속세율 비교**

-  **55%** 1위: 일본
-  **50%** 2위: 대한민국
-  **45%** 3위: 프랑스
-  **40%** 4위: 미국
-  **40%** 5위: 영국
-  **34%** 6위: 스페인
-  **33%** 7위: 아일랜드
-  **30%** 8위: 독일
-  **30%** 8위: 벨기에
-  **25%** 10위: 칠레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OECD 33개 회원국 27위 정도에 불과하다. 세율을 결정하는 곳은 국회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란 그 직업상 증세보다는 감세에 민감하고 그 결과가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예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이 제출한 입법안 중 세입의 공공재원의 감소 또는 공공부담의 신설이나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 발의 법안 및 개정안은 접수조차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이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삼성의 상속세액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피상속인인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의 주식가치는 2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물론 이는 당분간 계속 변동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포함)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당사자만

알고 있고 상속인이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하여야 그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제도 적용대상 세목이다. 몇 년 동안 과세관청이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만 확정된다.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는 그냥 신고에 그칠 뿐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상법은 법인을 주주와 별개의 분리된 경제적 및 법적 실체라고 규정한다(법인실체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벌기업을 창업주와 동일시하는 경향과는 별개로, 삼성은 삼성이고 이건희 회장은 주주일 뿐이다. 삼성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자칫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만일 현금이나 예금 또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문제를 세법이 감당할 수는 없다. 세법은 공평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법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 현행 세법에서는 최장 20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금액에 따라 이를 좀 더 늘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과 안전자산 투자 전망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도입될 전망이다. 만기 10년과 20년 국채에 투자하여 만기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함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 미국에서는 비시장성증권(Nonmarketable Securities)이라고 한다.

WORDS.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투자전략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잔액은 약 840조 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달러 환산 기준으로 세계 12위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의 원활한 차환발행과 재정자금의 추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20일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국고채의 연간 발행량은 18.6조 원(1999년)에서 174.5조 원(2020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채투자 수요를 확충하여,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와 개인의 국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채투자금액은 약 151조 원으로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이 주요 투자자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채의 글로벌 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으로 외국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 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시가총액 비중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Index펀드 규모가 급감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게 된다. 개인의 국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을 도입한다. 현재는 개인이 직접 국채에 투자하려면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 공모입찰에 참여하거나,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로 매입해야 한다. 국고채 ETF를 통한 간접투자도 가능하나, 26개 펀드(국채ETF)의 총 규모가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투자대상 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본인의 투자목표에 맞는 투자대상 자산(종목)에 투자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개인투자자의 국채투자 비중(약 0.07%)이 낮은 이유는 매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정기예금 대비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은,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물은 표면이자율의 30%, 20년물은 표면이자율의 60%를 가산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10년물과 20년물 국고채 금리가 1.7%, 1.8% 수준이므로, 만기보유 시 0.5%, 1%를 가산금리로 지급한다.

원리금 만기 일시 지급이므로 10년과 20년 만기 6개월 복리채 형태로 발행되고, 일시 이자금액이 만기에 지급되므로 분리과세(分離課稅)가 필수적이다. 분리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속한 연도에 이자소득이 일시적으로 계상되므로 세금면에서 매우 불리하여 상품성이 떨어진다.

분리과세되는 복리채는 세금 이연효과(移延效果)가 있어서 투자매력이 제고된다. 이표채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데 비해 복리채는 세전 금액을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개인별 매입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연간 3억 원 또는 5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체 발행금액의 10% 정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면 시중의 부동자금 흡수와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투자금액에 제한 없이 국채(US Treasury)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만 부과하고 지방소득세는 면제하고 있다.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대신 유통(매매)을 금지해서 유동성을 제약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으로 추가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 외에 채권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매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투자용 국채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금리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0년물, 2016년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여 현재 국채의 듀레이션이 9.3 수준이다. 2001년 1월 1일 국채의 듀레이션이 2.0 이었던데 비해 듀레이션이 크게 증가했고, 듀레이션이 큰 만큼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은 높아졌다. 만기보유 조건의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를 발행하면 해당채권이 매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리에 미치는 악영향(장기채금리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점은 공급측면의 매력이다.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의 상품성

IMF 외환위기 이후 매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적게는 100억 달러(약 10조 원), 많게는 1,000억 달러(약 100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 부동산금은 1,000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정기에금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내외로 하락해서 투자매력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단기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자금 수요 증가로 국채발행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채의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채권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국채수요 확충을 위한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 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일반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의 경우 만기보유에 따른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으로 수익성을 보강했기 때문에, 1년 이하 예금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매입을 고려할 수준의 수익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매우 높은 반면 정기예금 대비 수익성이 낮아서 투자를 기피해왔다.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의 경우 만기보유에 따른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으로 수익성을 보강했기 때문에, 1년 이하 예금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매입을 고려할 수준의 수익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만기보유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모두 높다면 국채가 아니라는 것은 투자자라면 다 알고 있다.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는 유동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수익성을 높인 상품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저축 성격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10년, 20년 투자가 가능하다.

더 많은 개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해당 국채에 대한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필요는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금인 공모주 청약 자금을 예로 들어보자. 공모주 청약 자금의 경우, 평소에는 MMF, CMA 등 단기상품에 투자하고 공모주, 공모주식 관련 사채(CB, BW 등)가 있을 경우에 출금해서 공모 청약한다. 이들 자금은 대기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매우 낮은 금리로 운용하고, 공모주 등에서 추가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담보대출이 추가되면 공모주 청약 등을 위한 대기자금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상품을 위한 고려사항

먼저,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 또는 중개상품이 필요하다. 금융투자회사의 위탁계좌를 통해서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라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예금(또는 신탁),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랩(또는 신탁),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펀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채에 100% 투자하므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 제한(49인)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대상이 국채이고, 투자전략은 만기보유이므로 중개상품(금융상품)의 수수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의 수수료는 운용수수료와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의 수수료는 연간 0.1% 내외에서 설계되어야 상품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소한 2년 정도 통합발행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투자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거치식과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이 있다. 적립식은 만기를 정해 놓고 목표금액을 적립하는 적금 성격의 상품이다. 10년에 1억 원을 모으는 목표로 매월 80만 원씩 국채를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10년 보유 요건 때문에 적금 만기시점에 출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9년 시점에 매입한 국채는 매입일로부터 10년 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월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 국채의 종류가 많아지고 발행비용도 증가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발행이 필요하다. 최소한 2년



동안은 동일종목의 국채를 매입하고, 해당종목을 만기 상환 받을 경우 10년 또는 2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투자용 장기 국채를 증여·상속할 경우에 만기보유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환매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국채에 대한 고령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대한 투자전망

산업화의 진전과 경상수지 흑자 영향으로 민간의 잉여자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금리는 1% 내외로 투자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 수익성을 보강한 국채 상품이 출시된다면 시장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경상수지 흑자로 증가된 유동성(통화)을 흡수하기 위해 1987년 9월 BMF(Bond Management Fund)라는 상품을 허용했고, BMF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BMF는 증권회사가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투자신탁회사에 현물로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는 BMF라는 상품을 통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했고, 한국은행은 BMF 매각 규모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보강된 안전자산(장기 국채)은 투자매력이 있고,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WIN CLASS



2021년 2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이다. 제대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더 내야 할 것이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더 많이 낸 것이므로 차이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을 받을 수도 추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WORDS. 이은하 세무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놓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챙겨보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로자나 장애인 등 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없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같이 사는 형제·자매이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단, 배우자는 나이 상관 없음)와 소득이 모두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자녀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공제받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둘째, 2020년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장모님이 올해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게 발생했다면 올해는 장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해마다 체크하는 것으로 내년에 장모님한테 소득이 없다면 내년 연말정산할 때에는 다시 부양가족에 넣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소득이 있다면 올해 받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대폭 커진다

올해는 유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다. 이 공제율이 3월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로 상향되고, 4~7월 사용액은 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30만 원씩 오를 예정이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인 경우 기존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기존 200만 원 한도에서 230만 원까지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할 두 가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모두 보지 않는다. 가령, 직장인 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100만 원이 넘는 만 59세인 아버지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는 유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단, 올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이 높은 편이다.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고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를 합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해서 쓴 50만 원의 15%인 7만 5천만 원 만큼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치과나 병원에서 쓴 의료비가 많아서 총 급여의 3%를 넘었다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인당 50만 원씩 포함되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세율이 높은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가족에게 따라오는 추가공제나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에 한해서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몰아서 받는 것(지출한 사람에 한함)이 가능하다.

홈택스 '2020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점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 연말 전에 저축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WIN CLASS

2021년 1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1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회복에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1분기 위험자산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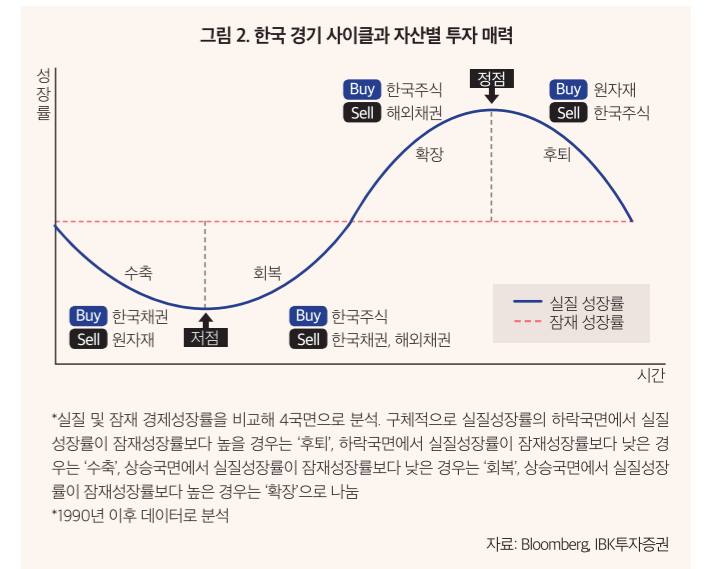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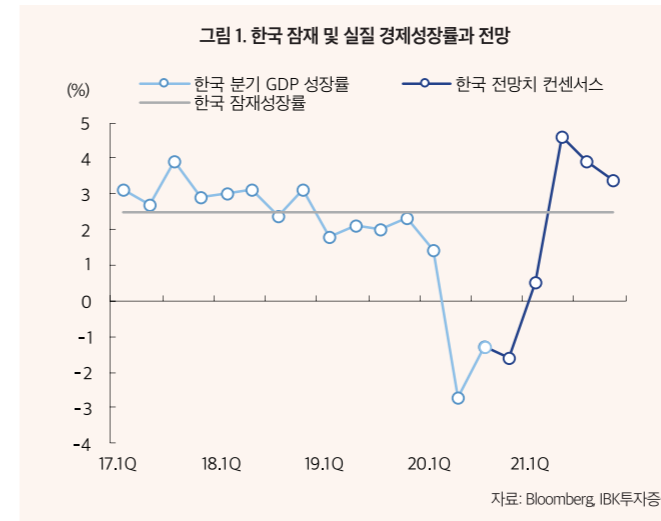
경기 회복에서 확장 국면 진입에 따른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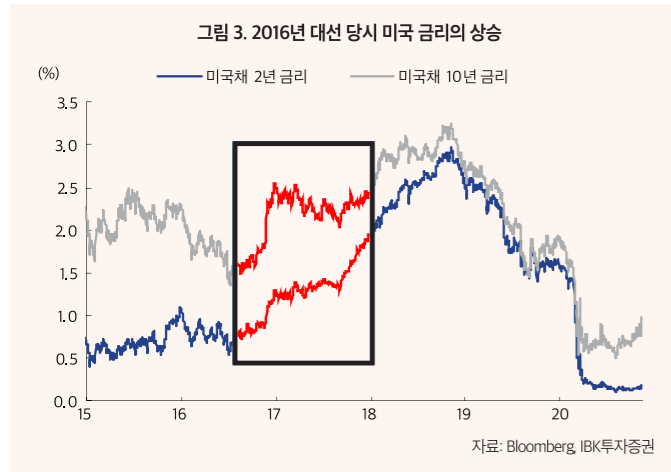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는 2021년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이어 2분기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상황 약화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 개선, 기저효과 등일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세는 1분기 중 점차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민간 및 대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모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북반구 동절기에 확산됐다가 1분기 중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에 이어 상용화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코로나19 관련 우려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다. 주요국은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을 기반으로 각국이 1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도 유지되면서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미국 연준이 제로(0)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양적완화(QE)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다. 미국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확대는 글로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달러화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글로벌 무역이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자국 통화 표시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 확대 효과도 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부터 타격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2021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도 지속될 것이다. 경제가 회복에서 확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주식과 원자재 등 위험자산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위험자산 중에도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경우 주식, 하반기까지 투자할 경우 원자재의 투자 매력도 높다고 판단된다. 주식의 경우 투자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상반기 상승하고, 하반기 보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에서의 기업이익 반등이 상반기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경기 반등과 함께 인플레이션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이익 증가세 약화, 정책 되돌림 우려로 하반기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원자재의 경우 경기 확장국면 후반 또는 후퇴국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경기 사이클과 주식시장,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보면 경기가 회복과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경기 확장 후반으로 가면서 증시는 부진했다. 반면 원자재는 확장국면 후반 또는 후퇴국면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 후퇴국면에서는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지만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익은 악화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도 소비를 약화시키면서 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정책과 금리와의 관계

2021년은 재정정책의 해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발 수급적 금리 상승 압력이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1분기에는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그렇지만 이는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긴 궤도 안에서 판단했을 때 일시적인 상승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부터 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쓰였던 정책은 주로 통화정책이었다. 재정정책은 효과가 분명하고, 효과를 볼 부분에 대한 타겟팅이 용이하지만 규모와 목적 등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통화정책은 타겟이 불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 결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적시성을 지니고 있다.

두 정책 다 채권시장에 영향력이 크지만,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보통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장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이 세금이나 기존 국부로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시장에서의 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이는 곧 국채 발행의 증가로 이어지고, 채권시장의 수요-공급을 움직여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불러온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될 때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2016년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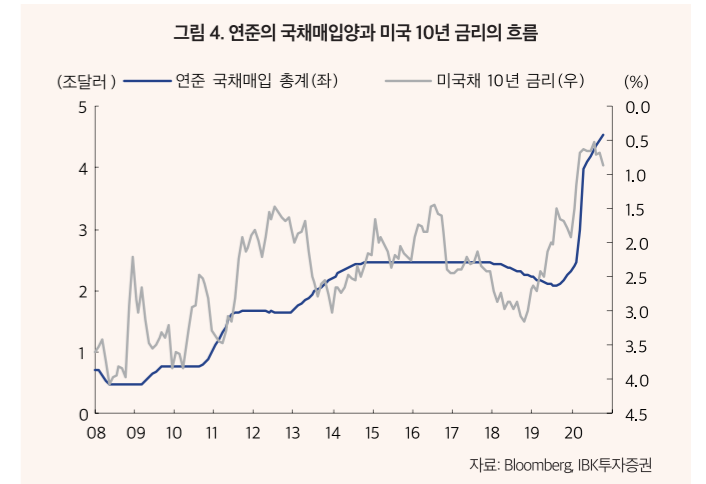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해이므로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서 탈피하고, 경제의 생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정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향후 성장률과 경제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다. 따라서 2021년에도 2020년 못지않게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는 이미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여력이나 효과 측면에서도 통화정책은 현상 유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각국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에 봉착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리스크 대비 얻는 것이 적을 수 있다.

결국은 채권시장에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정책을 크게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임기 초반인 만큼 재정정책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검사 및 치료 등 비용을 준비하고, 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적자를 늘리는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의 수급적 금리 상승 압력은 꾸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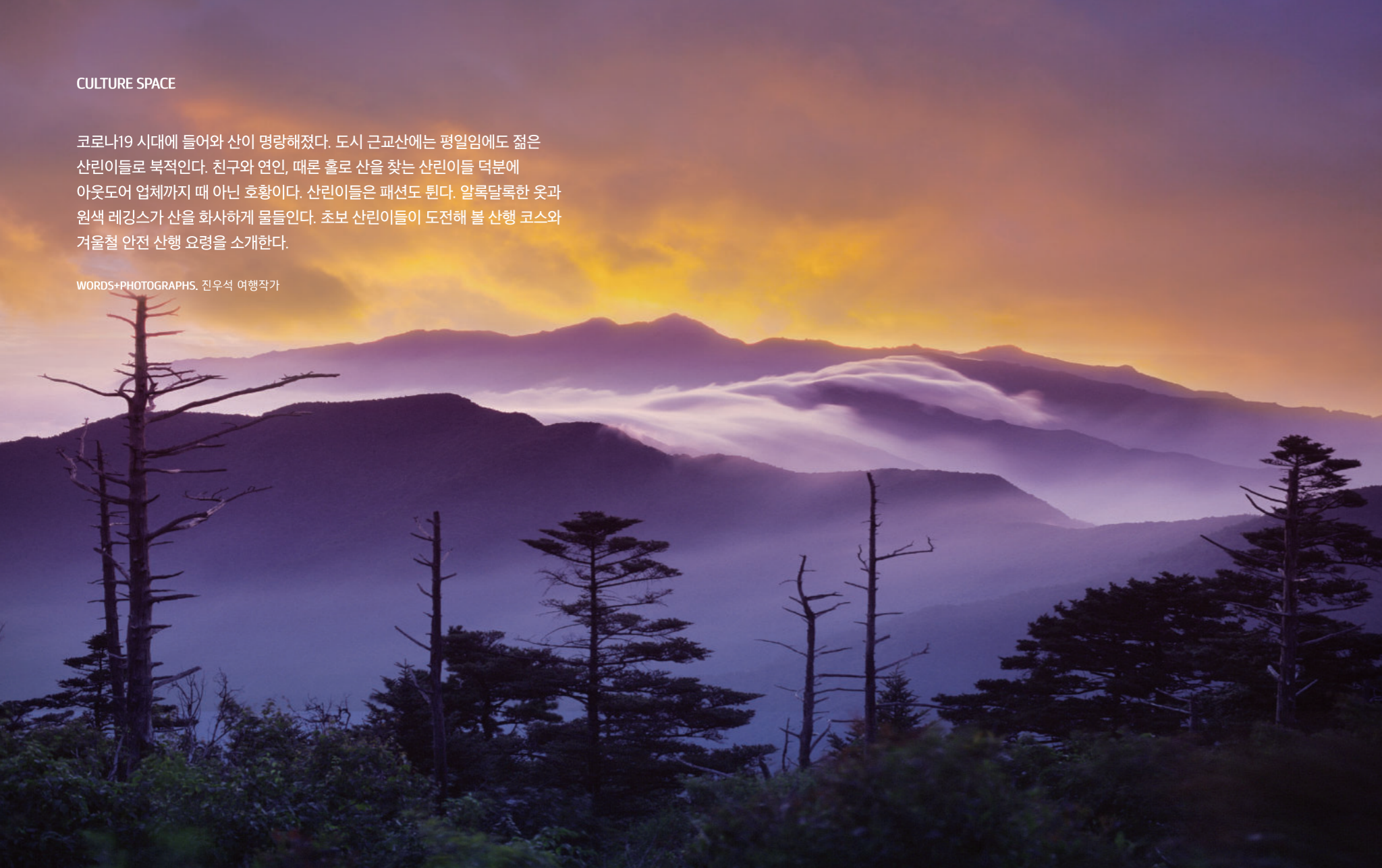
것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의 수급적 금리 상승 압력은 꾸준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금리의 방향은 상승인 것일까?

재정정책에 의한 금리 상승은 구축효과라는 경제적 이론으로 설명된다. 구축효과는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정부가 나누어 씀으로써 그 자원에 대한 차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축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유휴자원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유휴자원이 존재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휴자원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정책을 쓴다고 해서 구축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결국 경제적 여건을 종합해 고려해봤을 때 재정정책발 금리 상승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정책이 실물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금리가 낮지 않다면 정책을 아무리 쓴다 해도 민간의 투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가 늘어나긴 어렵다. 각종 정책 지원이 자발적인 투자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의 부담(비용)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국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결국 재정정책 확대로 채권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자산매입) 등으로 채권시장의 공급 충격을 상쇄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겠다. WIN CLASS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와 산이 명랑해졌다. 도시 근교산에는 평일임에도 젊은 산린이들로 북적이다. 친구와 연인, 때론 홀로 산을 찾는 산린이들 덕분에 아웃도어 업체까지 때 아닌 호황이다. 산린이들은 패션도 튼다. 알록달록한 옷과 원색 레깅스가 산을 화사하게 물들인다. 초보 산린이들이 도전해 볼 산행 코스와 겨울철 안전 산행 요령을 소개한다.

WORDS+PHOTOGRAPHS. 진우석 여행작가



산린이들이여 민족의 영산으로 떠나자

민족의 명산에 펼쳐진 구름바다, 지리산 노고단

구례공용터미널에서 성삼재로 가는 첫차는 오전 3시 40분. 첫차가 이렇게 빠른 건 지리산이니까 가능하다. 버스는 구불구불 이어진 산악 도로를 힘겹게 올라 성삼재에 다다른다. 새벽 성삼재는 뼈를 에는 추위가 뒹긴다. 헤드랜턴을 켜고 산행을 시작하면,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 쉬엄쉬엄 어둠을 뚫고 1시간쯤 걸으면 노고단 대피소에 닿는다. 대피소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노고단에 오른다.

시나브로 견고한 어둠의 장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노고단 고개에 오르자 탄성이 터져 나온다. 운해다. 구름바다를 뚫고 '지리산 엉덩이'로 불리는 반야봉이 우뚝하다. 구름은 자꾸 반야봉을 타고 넘는다. 구름이 참 자유로워 보인다. 반야봉 오른쪽으로 천왕봉의 머리가 살짝 보이고, 그 옆으로 붉은빛이 쏟아져 나온다.

오전 6시 30분쯤, 빛은 어둠을 집어삼키고 말간 해가 뜬다. 지리산 일출은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을 최고로 치지만, 운해 속에 펼쳐지는 노고단 일출도 뒤지지 않는다.

일출만으로 성에 차지 않고 체력이 허락한다면 지리산 주능선을 걸어보자. 이른 아침, 순한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산길을 걷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또 있을까.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마른 낙엽 냄새가 솔솔 풍긴다.

돼지령은 멧돼지가 많이 출현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으로 왕시루봉이 구름 이불을 덮고 늦잠을 자고 있다. 오른쪽 구례 방향으로 섬진강이 살짝 보인다. 피아골 삼거리를 지나면 임결령 샘이다. 샘에는 쿵쿵 물이 쏟아진다. 단맛 나는 물을 들이켜고 다시 길을 나서면, 반야봉으로 가는 길이 갈리는 노루목 삼거리. 여기서 반야봉은 생략하자. 반야봉까지 50분쯤 올라야 하는데 산린이들에게는 무리다. 전남, 전북, 경남 3도가 만나는 삼도봉에서 반야봉과 천왕봉을 조망하기 좋다. 삼도봉에서 제법 급경사를 내려오면 화개재다. 여기서 왼쪽 반선 방향으로 내려서면 장장 9km가 넘는 뱀사골계곡이 시작된다. 옛날 보부상이 소금을 짚어지고 내려오다 물을 빼뜨려 물 색깔이 간장처럼 변했다는 간장소, 제승대, 병소, 병풍소, 탁용소, 요룡대 등 절경을 두루 거친다. 와운마을 갈림길에서 1시간을 더 내려오면 반선에 닿으며 황홀했던 산행이 마무리된다.

지리산 가이드

용산에서 구례구행 기차를 이용한다. 05:45~22:45, 하루 17회 운행한다. 구례공용버스터미널→성삼재 버스는 03:40~16:20, 하루 5회 다닌다. 성삼재~노고단 왕복 코스는 5.2km, 3시간 30분쯤 걸린다.

Tip. 겨울철 안전 산행 가이드

① 체온유지

산악 전문가들은 "산행기술 가운데 100%가 체온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겨울철 산행에서 체온은 곧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최대의 적은 바로 저체온증이다.

01



— 01.
지리산 주능선의 운해 일출.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명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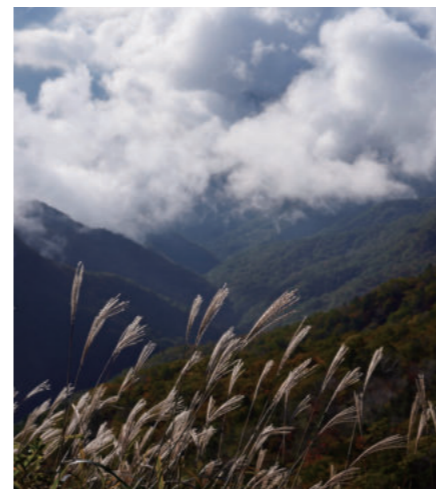
— 02.
뱀사골은 지리산을 대표하는 계곡으로 소와 담, 숲이 어우러져 담백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 03.
돼지령의 역새가 운해를 배경으로 하늘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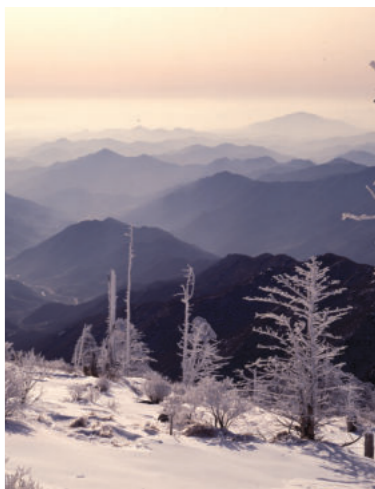
— 04.
눈 덮인 지리산의 풍경

02

03



04





05

— 05.
폭설이 내린 후에 찾으면 한라산의
야성을 감상할 수 있다.

— 06.
만세동산의 구상나무숲. 한라산의
풍만한 허리를 따라 도는 윗세오름
코스는 부드러운 눈길을 걸으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 07.
어리목 입구에서 사제비동산으로
가는 길의 눈꽃터널.



06

설문대할망 엉덩이처럼 탐스러운 눈길, 한라산 윗세오름

산행 들머리인 어리목 광장(970m)은 겨울철이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한다. '세계자연유산'이라고 써진 거대한 간판 뒤에서 산길이 시작된다. 숲이 우거진 산길로 들어서면 눈꽃 터널이 시작된다. 이 터널은 사제비동산까지 1시간쯤 이어진다. 제주에 흉년이 들면 이 물참나무가 열매를 떨어뜨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었다는 송덕수(頌德樹)를 지나면 갑자기 나무들이 사라지고 시야가 넓게 열린다. 사제비동산(1,428m)이다.

사제비약수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 30분가량 평탄한 길을 따르다 보면 눈 덮인 구상나무숲이 나타난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다. 특히 윗세오름 아래 1,500~1,600m 고지의 만세동산 구상나무숲이 유명하다.

눈과 바람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은 구상나무에는 한라산의 야성이 새겨져 있다. 지난밤 몰아친 혹독한 눈보라를 이겨내고 의연하게 서 있는 구상나무들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 뒤로 백록담 화구벽의 웅장한 풍경이 드러나면 “우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 풍경이 제주 10경 가운데 7경인 녹담만설(鹿潭晩雪)이다. 백록담에 눈이 덮여 장관을 이루는 경치는 이곳 만세동산(1,606m)에서 보는 것이 으뜸이다.

만세동산부터 윗세오름 대피소(1,700m)까지는 평지와 다름없다. 백록담 옆으로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민대加里오름, 장구목, 어슬렁오름, 윗세오름 등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윗세오름대피소에 도착한다. 이곳 대피소가 어리목 코스의 종점이다. 대피소에서 점심을 먹고, 하산은 영실 방향으로 잡는다.

윗세오름을 오른쪽으로 끼고 크게 돌면 샘터가 나온다. 이른 아침에 노루들이 목을 축인다고 해서 노루샘이다. 노루샘부터 병풍바위까지는 그 유명한 선작지왓이 펼쳐진다. 봄여름으로 털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으로 펼쳐지는 곳이다.

길을 건다 뒤를 돌아보면 풍만하게 살찐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이 보기 좋다. 두 봉우리의 뽕뽕한 곡선을 보고 있자니, 그 옛날 한라산을 깔고 앉아 한 발은 제주도 앞바다의 관탈섬에, 다른 발은 마라도에 엮고 빨래를 했다는 설문대할망의 엉덩이가 떠오른다. 설문대할망이 소변을 보자 땅이 파이면서 우도가 만들어졌더니, 제주 옛사람들의 상상력은 참으로 해학적이며 호탕하다.

병풍바위에서 급경사를 내려오면서 눈을 뒤집어쓴 영실기암을 구경하고, 분위기 그윽한 아름답리 적송 지대를 통과하면 산길은 끝이 난다. 한라산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이토록 부드러운 눈길을 걸을 수 있을까? WIN CLASS

한라산 가이드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산행 들머리인 어리목 가는 버스는 07:30~15:20, 1일 9회(동계 11월~3월) 다닌다. 어리목 광장에서 윗세오름까지 4.7km 2시간쯤, 윗세오름에서 영실까지 3.7km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산세가 완만하고 부드러워 산린이들에게 적당하다.

07



Tip. 겨울철 안전 산행 가이드

◎ 꼭 필요한 동계 장비

- 등산화는 바닥 창이 두껍고 발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중등산화가 좋다.
- 아이젠은 얼어붙은 길과 눈길에서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 필수 장비. 자주 신고 벗어야 하므로 탈착이 쉽고 밴드 부분이 튼튼한 제품으로 고르면 된다.

Mont Blanc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알프스를 잇는 몽블랑 트레킹

유럽 사람에게 알프스를 제대로 즐기는 법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몽블랑 트레킹을 이야기한다. 알프스 산맥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다. 그중에서도 몽블랑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에 연결되어 있어 푸르 드 몽블랑 Tour du Mont Blanc(TMB) 트레킹을 하면 몽블랑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

WORDS. 이지홍



© iStock

01

- 01. 몽블랑 트레킹의 시작점 '샤모니'
- 02.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 '몽블랑'
- 03. 뚜르 드 몽블랑은 몽블랑 주변의 약 170km를 이동하는 독특한 트레킹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 7~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04. 프랑스 에귀 뒤 미디에서 관광객들은 몽블랑 마시프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

프랑스의 웅장한 산, 이탈리아의 뾰족한 산봉우리들, 스위스의 목가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몽블랑 트레킹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이로운 선물이다.

몽블랑 트레킹의 시작 '샤모니'

알프스의 중심 도시이자 몽블랑 등반의 베이스캠프가 된 프랑스의 '샤모니'. 그 이유는 몽블랑 트레킹을 할 때 보통 레우슈에서 시작하는데 이곳은 샤모니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어 비교적 거리가 가깝다. 뚜르 드 몽블랑 코스를 한 바퀴 돌고 레우슈로 돌아오는데 평균 10일 정도 걸리며, 개인 속도에 따라 빠르면 9일, 여유 있게 걸으면 12일에서 2주 일정으로도 돌아볼 수 있다. 일부 구간은 체력에 따라 트레킹을 생략하고 버스나 산악기차 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산세를 즐길 수도 있다. 곳곳에 많은 산장과 캠핑장이 있고 샤워 시설과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어 연령에 구애없이 트레킹을 즐겨도 좋다. 몽블랑 여행을 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다른 알프스 지역과 마찬가지로 6~9월 사이이다. 10월부터는 빨리 추워지기 때문에 선선한 여름에 알프스 자연 속을 걷는 것을 추천한다. 유럽 사람들의 경우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알프스에서 트레킹을 하며 휴가를 보내는 것도 선호한다.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 여러 산 중 최고봉 몽블랑은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이름이 같다. 둘 다 '하얀 머리의 산'이다. 만년설이나 부석으로 정상 봉우리가 일 년 내내 하얗게 보이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백두산과 이름이 같은 '몽블랑', 하얀 Blanc 머리의 산 M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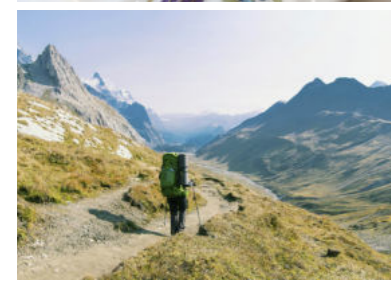
몽블랑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만년필을, 달콤한 케이크를 또 누군가는 눈 덮인 알프스와 리조트를 떠올릴 것이다.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 여러 산 중 최고봉인 몽블랑은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이름이 같다. 둘 다 '하얀 머리의 산'이다. 만년설이나 부석으로 정상 봉우리가 일 년 내내 하얗게 보이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뚜르 드 몽블랑은 과학자이자 등산가였던 베네딕트 드 소쉬르와 자크 발머가 몽블랑 등반을 위해 개척했던 길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정통 알프스 트레킹이다. 그래서일까 몽블랑 트레킹은 유럽의 가장 대표적이고 클래식한 트레킹 코스로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뚜르 드 몽블랑 Tour du Mont Blanc 'TMB'란?

알프스의 수많은 산 중 몽블랑을 중심으로 한 십여 개의 산을 타원으로 한 바퀴 도는 둘레길 코스를 '뚜르 드 몽블랑 Tour du Mont Blanc(TMB)'이라고 부른다. 뚜르 드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의 경치를 즐기는 트레킹으로 총거리는 170km다. 몽블랑 둘레길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 땅을 경유하며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데 트레킹을 하며 유럽 세 개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일정을 여유롭게 개인의 체력에 따라 10일에서 14일 정도로 잡는 것이 좋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연결하는 산세는 넓은 초원지대부터 만년설이 있는 침봉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만큼 압도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02



03

© iStock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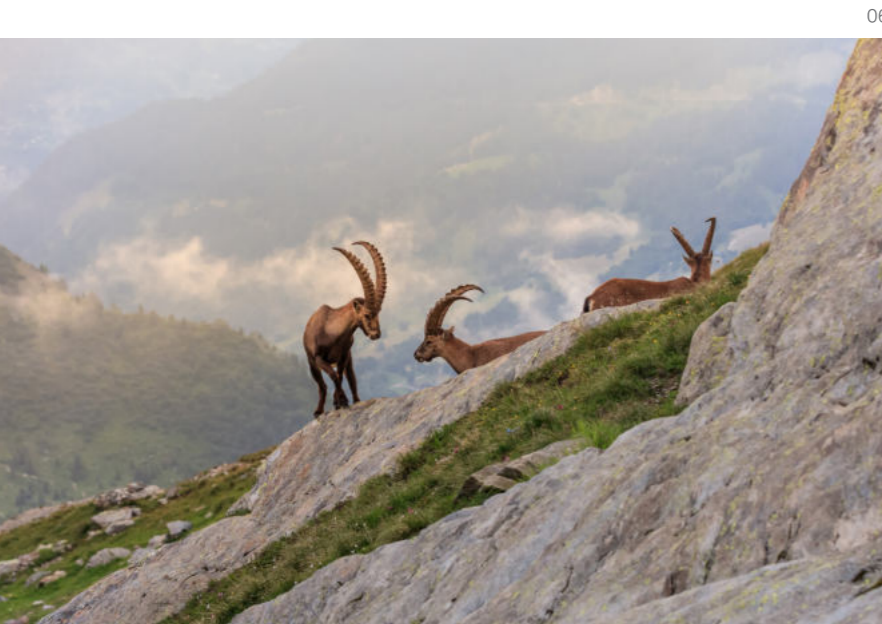
몽블랑은 6~9월을 제외한 대부분 눈이 쌓여 있는 지역이다.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여름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어우러져 우리가 다뉴멘터리에서 보던 풍경이 눈앞에 직접 펼쳐진다. 거기에 운이 좋으면 풀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양 떼들도 만날 수 있다.

— 05.
여름에도 설산을 만날 수 있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 06.
트레킹 길목에 만난 뿔이 멋진 야생 염소

— 07.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지에 있는 에귀 뒤 미디(Aiguille du Midi)에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 08.
트레킹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안내판. 이 지점부터 라폴리 산장까지 2시간 45분이 걸린다



06



07

푸르 드 몽블랑 추천 코스
Tour du Mont Blanc 'TMB'

DAY 01.

레우슈 → 17km → 레콩타민몽주아(1,167m) 17km

레우슈 케이블카 승강장 근처 TMB 출발점에서 걸어서 트레킹을 시작하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벨뷔 언덕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DAY 02.

레콩타민몽주아 → 18km → 크로와디본움르 산장

DAY 03.

크로와디본움르 산장 → 19km → 엘리자베타 산장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경로로 고도가 2,500m까지 올라가 호흡 조절을 잘해야 한다.

DAY 04.

엘리자베타 산장 → 23km → 베르토네 산장

쉽지 않은 코스지만 미야지 빙하 전경을 만날 수 있다.

DAY 05.

베르토네 산장 → 16km → 엘레나 산장

TMB 일정 중 경치가 가장 화려한 산장이니 사진을 많이 남겨둘 것.

DAY 06.

엘레나 산장 → 13km → 라폴리마을

스위스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해발 2,500m의 피티페레 고개를 넘으면 국경을 통과하게 된다. 평화로운 스위스 초원을 통과해 라폴리 마을로 들어가는 일정이다.

DAY 07.

라폴리마을 → 16km → 샹페스당오

스위스의 전형적인 시골 풍경으로 샹페스 마을은 짙은 녹음과 어우러진 호수가 인상적이다.

DAY 08.

샹페스당오 → 22km → 사라미용 산장

DAY 09.

사라미용 산장 → 15km → 라플레제르 산장

몽블랑 산줄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호수 옆 산장에 머무르는 것을 추천한다.

DAY 10.

라플레제르 산장 → 17km → 레우슈

만년 설산이라 이름 붙은 몽블랑이 웅장하게 뻗은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코스다.

몽블랑 트레킹의 해발고도는 최저 960m에서 최고 2,600m 사이를 매일 오르내릴 정도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매일 반복된다. 반복되는 고도차를 합치면 1만m가 넘는데 하루 평균 17km씩 8시간을 걸어야 한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고도차가 커서 안나푸르나 등반보다 두 배 이상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몽블랑 트레킹을 만만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몽블랑 트레킹 중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빙하와 빙하호수

푸른 녹음으로 우거진 알프스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산과 산 사이 작은 계곡에 빙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트레킹의 피로를 단숨에 날려줄 에메랄드 빛의 빙하 호수도 만날 수 있다. 요정이 나타나 노래를 부를 것 같은 빙하 호숫가에서 눈과 마음을 정화해보자.

양 떼와 야생화

몽블랑은 6~9월을 제외한 대부분 눈이 쌓여 있는 지역이다.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여름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어우러져 우리가 다뉴멘터리에서 보던 풍경이 눈앞에 직접 펼쳐진다. 거기에 운이 좋으면 풀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양 떼도 만날 수 있다.

깃발이나 비석으로 영토 표시를 해 둔 국경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걸어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인 국경을 넘나드는 일, 깃발이나 비석으로 영토를 표시해 둔 곳을 걷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림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풍경 속을 걸으며 아름다운 대자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

알프스 최고의 전망대 '에귀 뒤 미디'

트레킹이 끝난 후에는 해발 3,842m 전망대에 올라 알프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알프스 최고의 전망대 '에귀 뒤 미디'에 꼭 가보도록 하자. WIN CLASS



08

유령과 천문학자의 우연한 만남 새내기 유령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늦은 밤, 새내기 유령이 하늘을 날다 나무에 걸린 것을 천문학자가 우연히 발견해 둘이 만난 것처럼,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열정을 나누며 그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까지,
이 연결의 순환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EDIT. 김효정



오늘은 유령으로서 임무를 맡게 된 첫날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동료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하네요.

동료들을 따라잡으려면 나무를 돌면서 내려갈 게 아니라
기둥 사이를 곧장 가로질러야 할 거 같아요.



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어렵도 없었어요.
밑동에 걸리고 말았지 뭐예요.

아등바등 겨우 몸을 빼냈지만,
이런! 그 사람 앞에 똑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는 나를 일으켜더니
자기 천문대로 가서 좀 쉬라고 권했어요.



그는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나도 내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본 별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별을 연구하고 싶다고도요.

그는 흐뭇해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창문을 통과할 때 떨어뜨린 안경 때문에 동료들이 나를 찾아냈어요.
나 때문에 그가 위험해진 거예요.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오히려 그는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같이 별의 탄생을 연구하자고요.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곧 동료들이 이리로
들어올 거예요.
얼른 도망쳐야 해요.

그는 함께 일하는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주었어요.
새로운 임무를 위한 새로운 안경이었습니다.



하늘에 가까워지자
그는 신이 나서 크게 웃었어요. WIN CLASS



<새내기 유령>

글·그림. 로버트 헌터 / 에디시옹 장물랭

꿈과 열정, 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깊은 밤, 유령은 무더기로 임무를 수행하려 나가지만 하늘을 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새내기 유령이 나무 밑동에 걸려 동료들을 놓친다. 그 모습을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본 천문학자는 그를 찾아가고 둘은 친구가 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유령과 별 탄생의 비밀을 풀고 싶은 천문학자가 그리는 하루 동안의 여정.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이달의 펀드

투자성향 위험등급

고위험 고수익

2등급

마이더스 책임투자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경영 관심 증가

미래에셋 글로벌코어테크EMP

글로벌 IT산업 장기성장

미래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소비 부활

한국투자 한국의제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의 수혜업종에 주로 투자

에셋플러스 글로벌리치투게더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

고위험 고수익

3등급

유리 글로벌거래소

안정적 장기성과우수

IBK 플레인 바닐라

국내 EMP펀드 설정액 1위

중위험 중수익

4등급

신한BNPP 삼성전자알파

삼성전자 가격 상승 기대

한국밸류 10년투자배당

4분기 배당주 관심 증대

중위험 중수익

5등급

마이더스 단기국공채공모주

공모주시장 지속 강세 전망

마이더스 우량채권

유동성 증가 및 채권시장 안정

우리G PIMCO 토탈리턴

미 국채위주 안전자산 투자

저위험 저수익

IBK 단기채

단기자금 유치

유리 글로벌거래소 [주식형 3등급] (작성 기준일 : 10월 30일)

북미, 유럽, 홍콩, 일본, 호주 등 글로벌 국가들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고르게 분산투자를 수행하여 꾸준한 장기성과 추구

주요 포인트 장기 적립식 추천

- ◎ 글로벌 각국의 증권거래소는 독과점 비즈니스 모델로 안정적인 사업구조 영위
- ◎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안정적 배당수익과 기업성장에 따른 추가이익 동시 추구
- ◎ 글로벌증시 활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증가, 거래소 간 M&A 기대

펀드 기본정보

펀드유형	주식형
위험등급	3등급
설정일	2007-3-12
벤치마크	S&P/KRX Exchange인덱스

운용규모 / 판매금액 현황 (억 원)

전체 운용규모	당행 판매액
3,947	105(1)

수익률 현황 (기간수익률 %, %순위)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
수익률	-7.8	4.4	3.5	31.3
%순위	98.2	87.8	56.3	31.8

보수 및 수수료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e
선취수수료	1.0%		없음	없음
총보수	연 1.69%		연 1.89%	연 1.34%
환매수수료		없음		

매입 및 환매절차

기준시간	매입 체결일	환매	
		기준가적용일	지급일
17시	전	3영업일	4영업일
	후	4영업일	불가

주요 투자대상

거래소	비중(%)
런던	9.59
홍콩	9.56
독일	8.95
ICE	8.53
일본	6.83
브라질	6.66
나스닥	6.61
CME	6.27
호주	6.21
CBOE	4.36
소 계	73.57

VIP고객님들을 위한
IBK만의 품격있는 서비스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고급 리무진으로 공항(자택)까지 전문기사를 통한 의전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 이용가능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이용가능지역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시흥, 김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 부천, 고양, 일산, 구리, 하남),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웨딩카지원 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웨딩카로 식당에서 공항까지 의전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 이용가능공항 및 이용가능지역은 공항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동일

작명 서비스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이름, 회사·건물명 작명제공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의 직계비속(신생아 및 입양), 고객 명의의 회사·건물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경조사 서비스

상 또는 결혼이 발생한 고객에게 결혼 시 축하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3093호 (2020.07.29) 게시기한 : 2021.07.29 출급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lbkethics@ibk.co.kr)